

10/11/15

설교 제목: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태복음 13:24-30,36-43

- (마 13:24)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 (마 13:25)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 (마 13:26)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 (마 13:27)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 (마 13:28)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 (마 13:29)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 (마 13: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 (마 13:36)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 (마 13:37)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 (마 13: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 (마 13: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 (마 13: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 (마 13: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 (마 13:42)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 (마 13: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밭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쫓겨 주인 집 종들이 밭에 가보니 가라지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주인 집 종들은 놀라 집으로 달려가 주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당장 뽑아 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추수 때까지 가만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게 하리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천국은~~으로 시작되는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으로 비유로 쓰여진 단어 하나 하나가 무엇을 뜻하는지 친히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비교적 이해가 용이합니다.

(마 13:36)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마 13:37)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마 13: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마 13: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마 13: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서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곧 예수님 자신임을 천명합니다.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들 곧 마귀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를 말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추수 때란 세상 끝날이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point 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1. **본문을 잘 들여다 보면 서로 상반되어 대조를 이루는 두 부류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좋은 씨를 뿌리는 예수님과 가라지를 뿌린 원수 마귀,

또 다른 하나는 알곡인 천국의 아들들 곧 그리스도인들과 가라지인 악한 마귀의 아들들입니다.

1) 세상에는 이들이 섞여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안에는 알곡만 있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일지라도 세상은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형제의 너울을 쓴 가라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초대 교회 이래로 영지주의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해왔습니다.

지금도 신천지, 신사도, 인터콥, 박옥수 등등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들은 모두가 처음에는 천사의 얼굴로 들어와 우리들을 미혹하다가 때가 되면 본성을 드러냅니다.

2) 가라지를 덧뿌린 자는 원수,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마 13:28)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 13: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는 중동 지방에서 자라는 독보리를 말하는데 모양새가 보리를 꼭 빼닮아 이삭이 맺히기 전까지는 보리와 구별이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먹으면 구토 설사 경련등을 일으키며 심하면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요 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처럼 마귀가 밭에 가라지를 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3)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잘 때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마 13:25)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잘 때라는 말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때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을 때 원수 마귀는 거짓말과 외식, 속임수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4) 가라지는 결실할 때에 이르러서야 발견됩니다.

(마 13:28)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마 13:29)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만큼 식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가라지로 보이는 것이 가라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 눈에 가라지로 보이지 않는 것이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확실히 발견했을 때는 결실하는 때가 되어 이미 그 뿌리가 알곡들의 뿌리와 엉켜져 있을 때입니다.

결실할 때는 죄악과 불의가 관용하여 머리를 쳐들고 비진리들이 자기의 모습들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바로 결실할 때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알새라 부끄러워하며 공공 숨어있던 비진리를 행하는 동성애자들이 진리를 행하는 양 활개를 치고 고개를 쳐들고 나와 활보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돈과 권력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WCC 라는 단체에 많은 교회들, 특별히 규모가 큰 교회들이 그 단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직 사회에서 무슨 불이익을 받을까 앞세워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비진리에 고개를 버젓이 들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 진리입니까?

그것이 진리라면 예수님은 공연히 아까운 목숨을 바쳐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실 필요가 없었죠.

이런 비진리를 주장하거나 동조하며 고개를 쳐드는 교회 안에 단언하건데 구원은 없습니다.

5) 가라지 처리는 추수 때 하나님이 추수꾼을 시켜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 13:29)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마 13:30) 들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선불리 가라지를 뽑으려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시며 추수 때에 천사들을 시켜 먼저 불살라  
버리시겠다고 지금은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 2.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본문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 13:24)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마 13:25)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마 13:26)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밭은 세상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 13:37)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마 13: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천국이 세상에서 시작되어 세상 끝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밭이 세상이고 천국의 아들들이 세상 밭에 뿌려졌다는 사실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시작된 이 세상에는 알곡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시작하셨고 또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천국인 이 세상에는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참 신자들도  
있지만 반면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불신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 곧 세상 끝 날, 천국이 완성될 때에 이르면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명하여 천국이 시작된 이 세상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져 넣는 엄중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미리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종국에 그들은 풀무 불 곧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천국의 아들들인 참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 13: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마 13:42)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 13: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세상 끝 날이 오면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그러기에 현재 이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앞으로 누릴 완성된 천국을 미리 앞당겨 천국의 복을 일부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과 세상이 아주 팽팽한 대결 구조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긴장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완전한 축복만 누리고 살기를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과 영생,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세상에서 미리 받아 맛보고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누리고 살지는 못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의와 평강과 희락'(롬 14:17)을 누리면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것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더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그 휘하에 있는 악한 영들(악령들, 귀신들)에 대적하여 싸워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 안에도 극복해 나가야 하는 타락한 본성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만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 질 때까지는 매우 팽팽한 긴장(tension)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이 세상의 특징인 죄 가운데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만 또 한편 이 세상에서 죄와 불의와 싸워나가는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막닥뜨리는 고통과 갈등, 불의, 부패, 사고, 질병, 죽음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은 천국이 완성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미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복된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때까지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미리 맛보고 체험하면서,  
동시에 죄와 불의에 맞서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하심을 받으며 구원의 확신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되 그렇지 못할 때라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주는 교훈을 따라 완전한 그 나라가 오기까지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죄와 불의와 힘겹게 싸워야만 하는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인내하고 견뎌서 반드시 승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날에 이긴 자되신 여러분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